



가을, 들뜬 마음만큼 안전띠도 꼭!

가을 나들이의 설렘, 그 설렘을 끝까지 지켜주는 건 든든한 안전띠입니다.
안전한 귀가를 위해,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잊지 마세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교통안전기술지원, 교통사고조사, 교통안전교육·홍보, **tbn**교통방송, 운전면허 관리,
교통과학연구개발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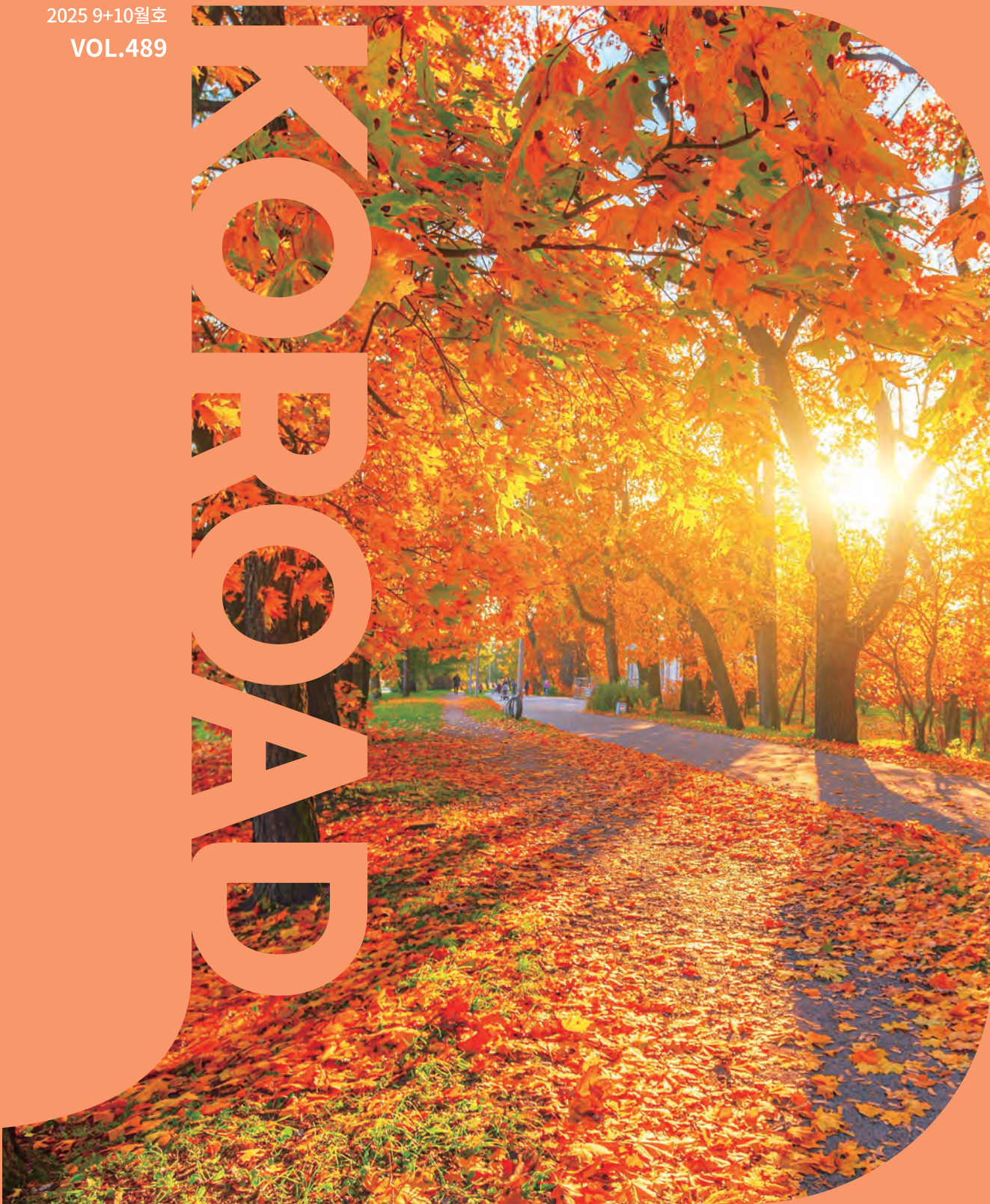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KOROAD BIMONTHLY MAGAZINE

가을의 바

2025 9+10월호 VOL.489

2025 9+10월호
VOL.489



신호등
KOROAD BIMONTHLY MAGAZINE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한국도로교통공단
KOROAD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도로 다시 보기



어느덧 선선해진 계절처럼, 도로 위 풍경도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출근길에 마주하는 전기차, 이제는 자연스러워진

개인형 이동장치(PM), 그리고 곧 다가올

자율주행차 시대까지.

우리는 새로운 기술과 변화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이 아닐까요?

결국 도로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의 배려와 약속입니다.

서두르지 않는 마음, 한 발 더 멀리 내다보는 시선,

그리고 서로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손짓.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우리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미래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선택한 양보 한 번, 철저하게 지키는

교통신호, 미리 켜는 방향지시등 속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지금의 작은 습관이 쌓여, 내일을 더욱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조금 더 여유있게

조금 더 서로를 살피는 순간들이 이어질 때,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도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새로운 일상입니다.

신호등

포켓뉴스 안내
자주 헛갈리는 교통법규나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교통안전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신호등 오디오 E-BOOK
QR코드를 촬영하면 오디오북으로 신호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통권 제489호
발행일 2025년 9월 3일
등록일 1980년 8월 22일
창간일 1980년 9월 30일
발행처 한국도로교통공단
발행인 김희중
편집인 엄관식
주소 2646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혁신로 2
전화 033-749-5085
제작·디자인 경성문화사
외부 감수 황준승



[특집] 도로 다시 보기: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 06 **약속해요 안전운전**
오늘의 신호준수
내일의 교통안전
- 10 **사고 보고서**
안전한 오늘이 미래를 만든다
- 12 **신호등 인사이트**
한국도로교통공단tbn충남교통방송 광영지 본부장
- 16 **교통안전 퀴즈**
퀴즈로 알아보는 교통안전 상식



배 - 움 - 길

- 18 **슬기로운 운전 생활**
알고 준비하면 든든한
국제운전면허증
- 20 **죄와 벌**
‘딜레마존’에서의 오판
- 24 **내 차 사용법**
자동차가 스스로
진화하는 시대
- 26 **미래 도로 설명서**
스마트 치안 시대,
자율주행 순찰로 골목길
구석까지 안전을 책임진다
- 30 **호동이 안전툰**
5화 안전거리 확보



실 - 천 -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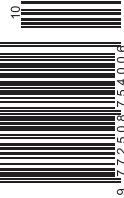
- 32 **팔도강산 한 바퀴**
전통의 숨결 속으로 가을을
거닐다, 경북 안동
- 38 **지금, 여기**
침면초 군락지
- 40 **세계 돌보기**
동물과 공존하기 위한
교통 표지판
- 42 **교통안전 실천 학습장**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편리함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들
- 46 **시선 차이**
횡단보도 앞,
마주 본 시선 속 마음
- 48 **안전 수칙 365**
농기계 안전수칙



나 - 눔 - 길

- 50 **KOROAD, CO-ROAD**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당신의 의견은?

- 52 **품 안의 안전**
임신부의 올바른 안전띠
착용방법
- 54 **우리집 필라테스**
상체 중심 필라테스
동작 세 가지
- 56 **KOROAD 게시판**
- 58 **KOROAD 소식**
- 60 **개인정보 처리방침**
- 61 **국제도로교통박람회**
- 62 **교통안전 소식**
- 63 **호동이 색칠공부**
- 64 **독자마당**
- 66 **구독 안내**



9 177250 875400 6
ISSN 2508-7541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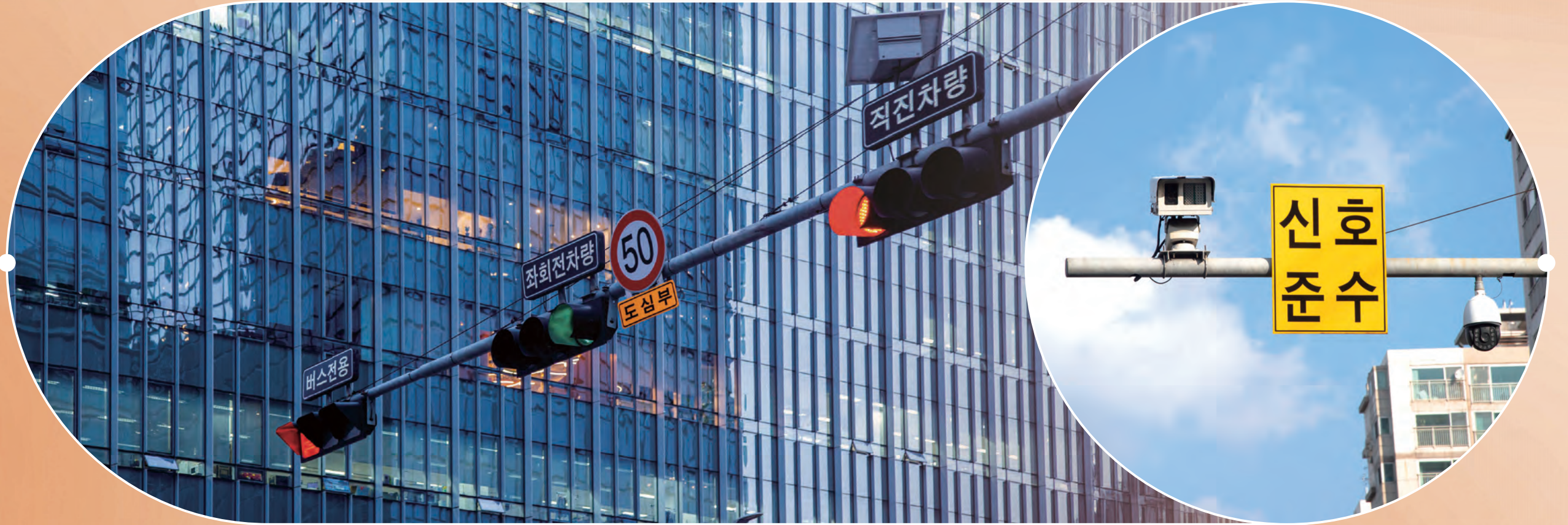


「신호등」에 실린 자료는 사전 동의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호등」에 게재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호등」은 환경부와 국제산림관리협의회에서 ‘환경인증’을 받은 재생 용지를 사용합니다. 내지는 친환경 재생 펄프(DIP) 함유율이 20% 이상인 제지를 사용해 환경친화적으로 제작합니다. 또한,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알코올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식물성 잉크를 잉크로 인쇄했습니다.



오늘의 신호준수 내일의 교통안전

약속된 신호를 지키는 것이 교통안전으로 향하는 지름길입니다.
정확히 알고 바르게 가면 다가올 미래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2025 약속해요 안전운전 캠페인

2025년 「신호등」은 교통사고 원인 1위 안전운전의무 불이행과 관련해 안전운전 캠페인을 펼칩니다.

1+2월호
배려로 성장하는 초보운전,
함께 만드는 교통안전

3+4월호
교통약자와의 동행,
성숙해지는 교통문화

5+6월호
도로 위 양보, 안전을 지키는
첫 걸음

7+8월호
운전 중 전방 주시,
모두를 위한 약속

9+10월호
**헛갈리는 교통신호?
아는 것이 힘!**

11+12월호
음주운전은 금지,
졸음운전은 휴식

교통 문해력 자가진단

평소 신호를 잘 지킨다고 생각하셨나요?
나도 모르게 위반한 건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



Q1. 직진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할 수 있을까?

- 적색 신호에서도 천천히 우회전하면 위반이 아니다.
- 적색 신호에서도 우회전은 가능하지만, 일시정지 후 보행자나 차량이 없을 때만 가능하다.



Q2. 비보호 좌회전 표지

- 이 표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좌회전이 가능하다.
- 이 표지는 좌회전 전용 신호 없이 '직진 신호에 좌회전' 할 수는 있지만, 맞은편 직진 차량과 보행자에게 '양보' 해야 한다는 의미다.



Q3. 황색 점멸 신호

- 황색 점멸 신호는 무시해도 되는 참고용 신호다.
- 황색 점멸 신호는 서행하며, 다른 차량과 보행자를 주의 해야 한다.



Q4. 회전교차로 표지

-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 차량이 우선이며, 진입 후 빠르게 빠져나가야 한다.
- 회전교차로에서는 이미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이며, 진입 차량은 양보해야 한다.

B를 몇 개 선택했나요?

4개: 교통 문해력 최고

완벽한 교통표지 해석능력! 도로 위 안전을 주도하는 운전 전문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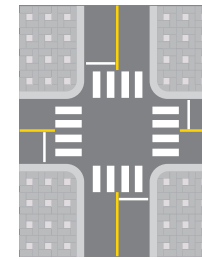
2~3개: 교통 문해력 예비 고수

주요 신호는 숙지하고 있지만, 실전에서 놓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복습이 필요합니다!

0~1개: 교통 문해력 향상 필요

아직 신호 해석이 미숙할 수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부터 다시 확인해 봅시다!

비보호 신호 통행 방법



비보호 좌회전

-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 맞은편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좌회전을 허용
-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는 반드시 정지 후 신호 대기

우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 우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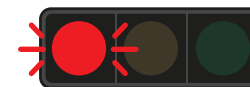
-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
- 전방 신호가 녹색일 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단,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보행자 횡단이 종료될 때까지 대기)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무조건 정지
- 우회전 후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이라도 건너거나 건너려 하는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가능

햇갈리는 교통신호



황색 점멸등

- 도로 상황에 주의하며 자동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하라는 의미



적색 점멸등

-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뒤, 주변 교통 상황을 살피고 안전할 때 서행하며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
- 정지 없이 통과할 경우 신호위반



회전교차로 지시 표지

- 원형 교통섬이 위치한 교차로에서 차량이 표지의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표지
- 회전교차로 내부로 이미 회전 중인 차량이 진입 차량보다 항상 우선



통행우선 지시 표지

- 흰색 화살표로 진입하는 차량에게 통행 우선권이 있음을 나타냄
- 빨간색 화살표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흰색 화살표로 진입하는 차량에게 양보 후 통행

안전한 오늘이 미래를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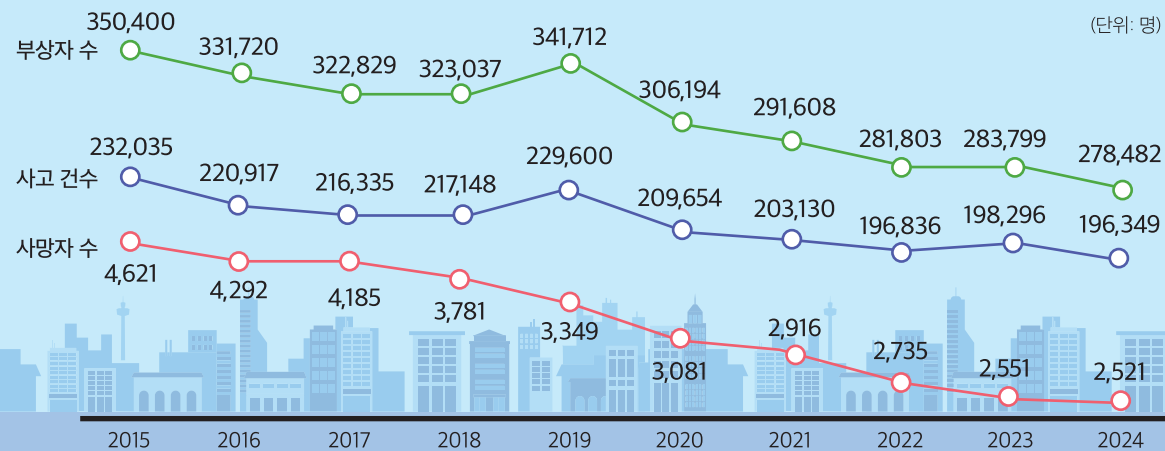
우리나라 교통안전 현황

교통기술 발전과 함께 미래 교통안전을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안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이 아닐까. 교통안전 현황을 살펴보고 미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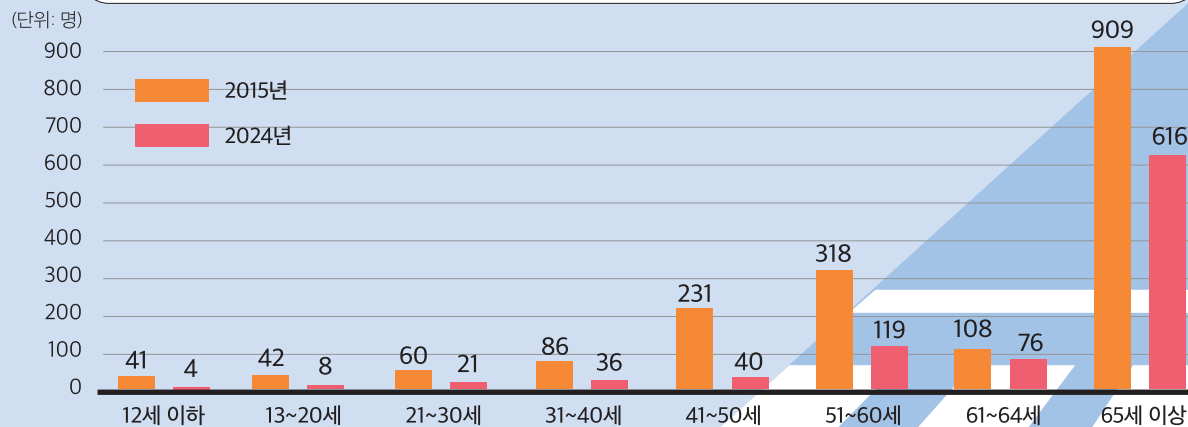
글 편집실 출처: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5.2.3.)

전체 사고는 하락세, 65세 이상 보행사망자 주의

최근 10년(2015~2024년) 교통사고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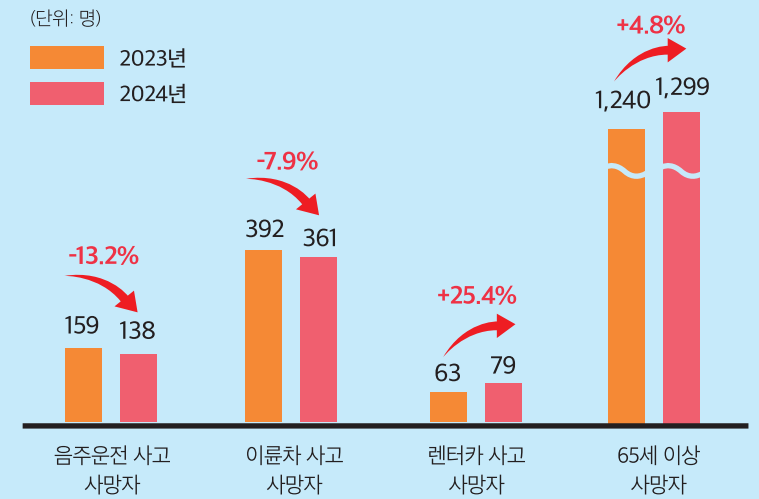
연령대별 보행사망자 수 비교



전체 교통사고 및 사망자 수는 꾸준히 줄어들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라 고령 보행사망자의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전년 대비 사망자 수는 1.2% 감소했으며 특히 음주운전 사고, 이륜차 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눈에 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렌터카 사고 사망자, 65세 이상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어 해당 사고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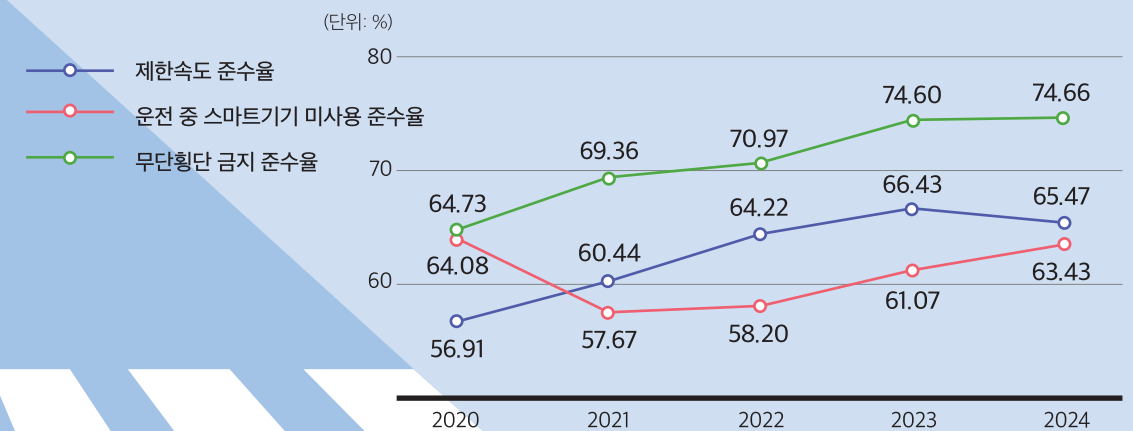
전년대비 전체 사망자 수 1.2% 감소



더 안전해진 도로, 개선점도 주목해야

국토교통부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2024년 교통문화지수는 80.73점으로 지난해보다 0.81점 상승했다. 특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비교적 큰 변화를 보인 항목은 '제한속도 준수율',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 '무단횡단 금지 준수율'로 나타났다.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이나 무단횡단 금지는 많은 국민이 대체로 지키고 있는 데 반해, 제한속도 준수율은 지난해 대비 하락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운전자는 '방향지시등 점등률', 보행자는 '횡단보도 신호 준수율', '횡단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에서 지난해 대비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최근 5년(2020~2024년) 교통문화 변화 추이



한국도로교통공단tbn충남교통방송이 지난 7월 8일 공식 개국했다. 충남 유일의 방송국으로서 재난과 교통 정보뿐만 아니라 유익한 생활정보를 전하고 도로 위 생명을 살리는 충남의 대표 미디어로 우뚝 서고자 한다. 도민과 긴밀히 소통하는 열린 창구,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돼 도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노력하는 광영지 본부장을 만나보았다.

글 송지유 사진 홍덕선

충남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삶을 잇는 가교

한국도로교통공단tbn충남교통방송 광영지 본부장

충남도민 염원 담은, 충남도 유일 지상파 방송국

지난 7월 8일, tbn충남교통방송이 첫 전파를 송출했다.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에 자리한 한국도로교통공단tbn충남교통방송(이하, tbn충남교통방송)은 FM 103.9MHz(천안·아산은 103.1MHz)를 통해 충남도민과의 첫 만남을 시작했다.

“tbn충남교통방송은 충청남도민의 염원을 실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건립한 공영방송입니다. 특히 충청남도는 전국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지상파 방송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tbn충남교통방송이 충남 최초의 지상파방송국으로 출범하면서 충남도민들의 오랜 염원과 난제를 풀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설립에 참여한 일원으로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개국을 진두지휘해 온 광영지 초대 본부장의 소회는 더욱 남다르다. 고등학교 시절을 홍성에서 보낸 그에게, 제2의 고향에 첫 지상파 방송국을 설립했다는 보람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KBS방송총국에서 기사를 거쳐 보도국장과 총국장을 역임한 광 본부장은 현재 한국도로교통공단tbn대전교통방송(이하, tbn대전교통방송)과 tbn충남교통방송의 본부장을 겸무 중이다.

tbn충남교통방송 스튜디오





한국도로교통공단tbn충남교통방송 전경



“2021년 tbn충남교통방송 신축공사 설계 용역에 착수해 개국하기까지 4년이 소요되었습니다. 예산 확보 문제로 난항을 겪으며 한때 사업 반납 위기까지 겪었지만 충청남도의 의지와 공단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혼연일체가 되어 뛰어준 직원들의 정성과 열정으로 성공적인 개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개국의 기쁨과 의미는 더욱 크게 다가온다. tbn충남교통방송은 지상 3층에 연면적 2,994㎡ 규모로 공개홀, 교통정보 상황실, 주·부조정실, 스튜디오 등 제작시설을 완비했다. 현재 근무 인원은 30명이지만 2026년에 39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tbn충남교통방송은 서산 원효봉, 천안 흑성산, 보령 옥마산, 계룡산, 금산 등 5곳의 중계소를 통해 충남권 전역에 방송을 송출한다.

재난의 최전선에서 생명을 살리는 방송

충남은 수도권과 호남을 잇는 교통 요충지이자,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가 타시도에 비해 비교적 높은 지역이다(2024년 기준 충남 10.5명, 서울 2.3명). 특히 해안과 산지가 복합된 지형 특성상 태풍, 폭우, 폭염 등 다양한 기상 이변에 민감하다. 이에 tbn충남교통방송은 지역 특수성에 맞춰 교통과 재난 정보를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실제로 개국 열흘 만인 지난 7월 17일, 충청남도 전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tbn충남교통방송은 즉시 재난방송 체제로 전환해 첫 긴급 대응에 돌입했다.

“아침 7시 첫 방송부터 전 제작 인력이 투입되어 긴급 재난방송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각 지자체, 소방, 경찰, 기상청과 긴밀히 연결하고 현장 시민들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침수 현황과 대피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등 재난을 함께 극복하는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방송국은 재난이 닥치면 가장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이 실시간으로 작동했던 상황이었다. 자체 제작 방송 시간 후에도 전국 방송 및 tbn대전교통방송과 연계하고, 제작진이 타 지역 방송에도 참여해 도내 피해 상황을 전국에 알렸다. 방송 후 한 도민의 “충남의 재난을 이렇게 다뤄준 방송은 처음”이라는 문자 메시지는 방송의 존재 이유를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tbn충남교통방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위험을 예측하고 생명을 지키는 미디어를 지향한다. 이에 반복 사고 구간을 분석해 생활 속 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교통과 재난의 최전선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방송’으로서 예고 없는 공사 구간, 농기계 야간 운행, 급변하는 기상 정보 등을 신속하게 알려 사고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충남 전역에 촘촘한 재난 대응망을 구축해 시·군청, 소방서, 경찰서와 실시간 통신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어촌계장이나 이장 등 지역 상황에 정



통한 인적 자원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정보 전달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도민의 목소리를 담고 삶을 연결하는 다리

tbn충남교통방송은 도민의 염원을 실어 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추구하며 도민과 함께 만드는 공영방송이다. 교통과 재난 정보 외에도, 음악과 생활 정보는 물론 지역의 경제, 문화, 공동체를 연결하는 미디어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기관과의 협업, 청취자 제보와 통신원 정보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리포터와 중계차를 활용해 지역 축제나 행사, 정책 등 현장 소식을 생생하게 전하는 지역 밀착·맞춤형 방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송이 나간 후 ‘감자가 잘 팔렸다’라거나 ‘피서지에 사람이 몰렸다’라는 반응을 들을 때, 방송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tbn충남교통방송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방송한다. 현재 출근길 교통정보 중심의 ‘출발! 충남대행진’(오전 7~9시), 지자체장과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의 현안을 심층 모색하는 ‘tbn충남매거진’(오후 4~6시), 퇴근길 운전자들을 위한 ‘달리는 라디오’(오후 6~8시) 등 3개의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고 있다. 내년까지 자체 제작 비율을 50%까지 달성해 모든 방송을 충남화할 계획이며, FM 동기방송망(SFN) 도입으로 충남 전 지역의 난청 해소와 안정적인 청취 환경을 구축했다.

“도민에게 가장 먼저,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그 지점에, 도민의 목소리를 담고 삶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곽영지 본부장은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책임감으로, tbn충남교통방송이 도민과 늘 함께하며 신뢰받는 공영 미디어가 될 것을 다짐했다.

얼마나 알고 있을까? 퀴즈로 알아보는 교통안전 상식

출처: 1·2종보통, 대형·특수 학과시험 문제은행

Q1. 자율주행시스템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승용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액은 4만 원이다.
- ④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도움말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 제56조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38의3호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완전 자율주행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제10호, 제11호 및 제11호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자율주행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신호등과 함께하는 독자 이벤트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정답을 독자 엽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Q2.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마음가짐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자율주행 자동차이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도 된다.
- ② 과로한 상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전하면 아니 된다.
- ③ 자율주행 자동차라 하더라도 항정신성의약품 복용하고 운전하면 아니 된다.
- ④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 사용이 가능하다.

도움말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항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의2(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2항 운전자가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해 운전할 때는 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제1항제10호(휴대용 전화 사용금지), 제11호(영상표시장치 시청 금지) 및 제11호의2(영상표시장치 조작 금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Q3.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신호와 관계없이 차량 통행이 없을 때 좌회전할 수 있다.
- ② 적색신호에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는 좌회전 할 수 있다.
- ③ 비보호이므로 좌회전 신호가 없으면 좌회전할 수 없다.
- ④ 녹색신호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는 좌회전 할 수 있다.

도움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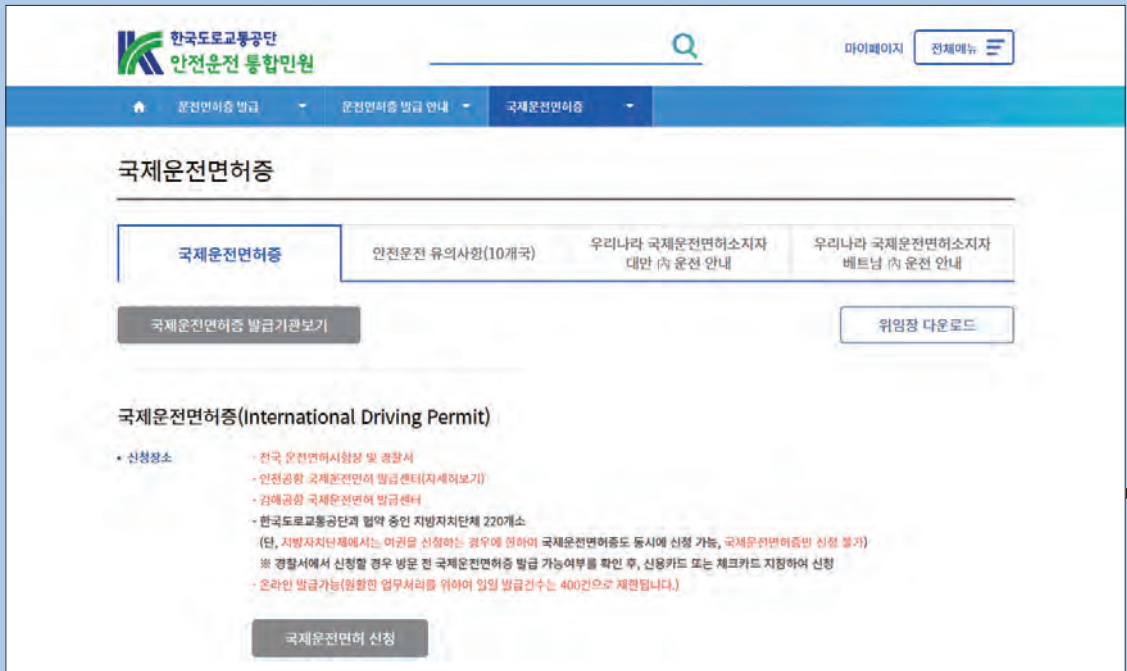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 지시표지 329, 비보호 좌회전 표지로 진행신호 시 반대 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좌회전할 수 있다.



알고 준비하면 든든한
국제운전면허증

해외에서 직접 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필수적인 준비 과정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은 국내 운전면허 정보를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증서로, 이를 소지하면 제네바 협약 및 비엔나 협약에 가입한 국가 등에서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

글 편집실



국제운전면허증 신청하기

대한민국에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인천·김해·제주국제공항 등 주요 공항 내 발급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다만,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상태, 혹은 과태료·범칙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된다.

방문 신청 시에는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가능),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를 준비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여권용 사진 파일과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신청 완료 후 약 3~5일 뒤 등기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 당일 발급이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등기우편 배송 기간이 포함된다. 발급 수수료는 9,000원이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배송료가 추가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이 기간 동안만 해외에서 운전할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 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사라진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은 현지에서 단기 체류 시에만 사용 가능하며, 입국 후 1년이 넘는 장기 체류 시에는 해당 국가의 면허를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국제운전면허증 활용 국가

한국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를 포함한 제네바 협약 및 비엔나 협약 가입국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만, 베트남 등 일부 별도 협약 국가에서도 인정된다. 다만 중국 본토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아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주(州)별로 인정 여부가 상이한 경우도 있어 출발 전 해당 국가의 교통당국이나 대사관을 통해 운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운전 시 국제운전면허증은 반드시 국내 운전면허증 원본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운전이 불가능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상 영문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신청 시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등(2023.7.12. 기준)

아시아 태평양	한국, 뉴질랜드, 라오스,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푸아뉴기니, 피지, 필리핀, 홍콩, 마카오 (협·약정체결 : 대만, 베트남)
미주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미합중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쿠바,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라과이, 페루
유럽	교황청,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조지아, 체코, 크로아티아, 튀르키예,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중동 아프리카	가나,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베냉,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시리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요르단,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코트디부아르, 콩고, 콩고공화국, 토고, 튀니지

* '국가 등'에는 독자적 운전면허제도를 가진 지역을 포함

출국 전, 국가별 운전 유의 사항 확인은 필수!

도로교통법 및 도로 상황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미리 유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요 국가의 운전 유의 사항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각국 대사관, 해당국 운전면허 관련기관 등에 문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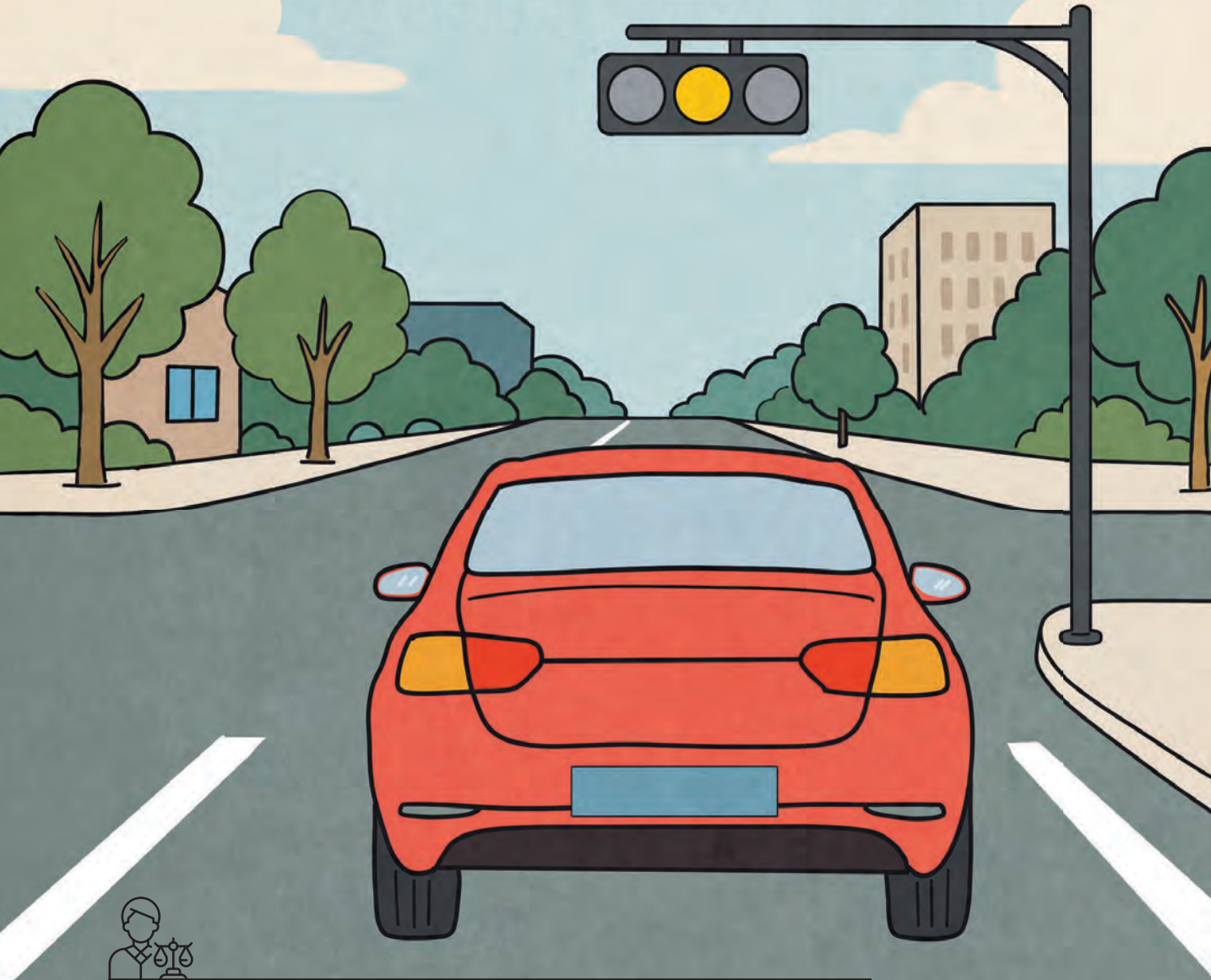


국외 운전 시 주의사항
제네바협약 주요 가입국
안전운전 유의 사항 확인하기

‘딜레마존’에서의 오판

황색 신호에 멈출 것인가, 통과할 것인가. 운전자가 찰나의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이른바 ‘딜레마존’에서 발생한 교차로 사고가 법정에서 논의됐다. 신호위반 여부가 형사처벌의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이번 사건은, 일상에서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순간을 법의 기준으로 되짚는다. 판결을 통해 ‘딜레마존’에서의 안전운전과 운전자의 주의 의무에 대해 생각해 보자.

글·그림. 차은서 감수. 천주현(형사 전문 변호사)



천주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형사법 박사, 대구고등검찰청·대구경북경찰청 수사위원 (제19회 우수변호사상 수상, 제61회 법의 날 표창 수상)

딜레마의 순간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다. 정옥은 토요일 아침,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햇살을 느끼며 운전대를 잡았다. 교통량은 적었고, 길도 한가로웠다.

익숙한 길을 따라 교차로에 가까워질 무렵이었다. 신호등은 초록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고,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페달 위의 발에 힘을 풀었다가 다시 망설였다.

“멈출까? 그냥 지나갈까?”

잠깐의 고민 속에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다. 뒷거울을 보니 뒤에 따라오는 차량의 거리가 너무 짧았다. 급정거는 위험할 수도 있었다. 동시에 머릿속으로 단속카메라의 붉은 불빛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이런 게 바로 그 딜레마존인가...”

가슴이 쿵쥔거리며,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미끄러워졌다. 결국 정옥은 가속페달을 깊게 밟았고, 차량은 교차로 안으로 진입했다. 정옥은 순간적으로 오른쪽 시야에 자동차 한 대가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어?!”

짧은 외침과 동시에 자동차 두 대는 충돌했고, 정옥의 차는 크게 흔들리며 멈췄다. 정옥은 순간적으로 온몸의 털이 쭈뼛 서는 듯한 감각을 느끼며 얼어붙었다.

순식간에 사고 현장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미 빨갳게 바뀌어 버린 신호등 앞에서 정옥은 아픔을 참으며 나오는 피해자 미래를 바라보았다. 정옥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가해자가 된 정옥

“아침부터 진짜!”

날카로운 미래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이보세요! 지금 빨간 불이잖아요. 교차로에서 신호도 안 보고 가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노란 불로 바뀌었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괜찮으세요?”

“괜찮아 보여요? 일단 보험사 부르고 신고부터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와 보험사 차량이 도착했다. 사고를 수습하며 경위를 설명하다보니 정옥은 어느새 가해자가 돼 있었다. 일반 교통사고가 아니라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아무리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제가 신호위반을 한 건 아니잖아요...”
 정옥은 항변했지만 미래는 ‘법의 판단에 맡기자’라는 답변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시간이 흘러 1심 판결의 날이 다가왔다. 판사는 사건의 모든 정황을 꼼꼼히 살피며 신중히 판결을 내렸다.
 “당시 교차로에는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반드시 정지할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것을 신호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2심 항소심도 역시 무죄를 내렸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의 생각은 달랐다. “원심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별표2]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까지 사건이 올라갔다. 논쟁의 초점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도 황색 신호에 반드시 정지할 의무가 있느냐로 좁혀졌다. 법정 싸움이 길어질수록 정옥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망설임의 대가

대법원의 공기는 더 차갑고 무거웠다. 정옥은 다시금 피고인석에 앉았다. 판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언급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 황색 신호에 운전자의 정지 의무가 있느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 등화를 보고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 봄이 타당합니다.”
 눈앞이 아찔해진 정옥은 힘겹게 입을 열었다.
 “판사님, 정말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어요. 뒤차가 너무 가깝게 따라붙어서... 제가 멈췄다면 사고가 날 것 같았습니다.”
 판사는 그의 사정을 이해하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냉정한 법의 논리로 되돌아갔다.
 “피고인의 입장과 당시 상황의 난처함을 재판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딜레마존이라 하여 신호위반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호 체계는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기본 규범입니다.”

판사는 판결문을 들며 말을 이어갔다.
 “본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합니다.”
 정옥의 시야가 흐려졌다. 무거운 현실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법정에서 나오는 발걸음은 무거웠고, 혼란과 후회가 가득했다. 이대로 원심에 사건이 돌아가면 사실관계 변동이 없는 한 정옥은 처벌될 수밖에 없었다. 순간의 망설임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대가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때 차를 세웠더라면...”



위 사건은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례를 각색한 내용입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4262 판결 2018도142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자동차가 스스로 진화하는 시대

전동화가 빨라지면서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분야를 뜨겁게 달군다.

글 김태영(자동차 저널리스트)

이젠 자동차도 업데이트하는 시대

단언컨대 스마트폰은 인류가 지금까지 만든 개인 소유 물건 중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결과물이다. 스마트폰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후 늙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사용성과 요구에 맞춰 진화한다. 데이터 통신을 바탕으로 하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활용해서다. 스마트폰처럼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되는 물건(IoT, 사물인터넷)은 제품이 출시된 후에도 개발자가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개선하면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 비슷한 원리에서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자동차 분야로 접목한 것이 ‘오버 더 에어(OTA, Over The Air)’ 기능이다.

자동차 분야에서 OTA의 역사는 10년 정도로 짧다. 초기에는 내비게이션의 지도 업데이트나 일부 구동 프로그램 버그 수정 정도가 목표였다. 하지만 무선 정보통신 기술이 5세대까지 진화하면서 대용량 데이터를 자동차로 실시간 전송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때부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주기는 짧아졌고, 영역은 방대해졌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나 사용자 인터페이스처럼 눈에 띄는 기능 외에도 자율주행 알고리즘 개선, 서스펜션 제어 튜닝, 브레이크 감도 개선 등 승객이 직접 느끼지 못하는 영역까지 OTA 서비스에 포함된다.

전기차에서 돋보이는 OTA 기능

OTA를 활용한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발전하는 분야는 전기차이다. 최신형 전기차는 스마트폰과 비슷한 구성이다. 배터리, 전기모터, 차체 제어처럼 물리적인 장치의 조합이 중요하다. 반면 이 모든 것을 제어하는 것은 통합 프로그램, 즉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는 배터리의 에너지 관리, 모터 출력 제어처럼 주행에 필요한 기능 외에도 음악을 듣거나 차 문을 여는 것에도 관여한다. 쉽게 말해 순수 전기차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활용 비중이 크다. 그만큼 소프트웨어를 수정해서 개선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또한 고전압 배터리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차의 특성상 충분한 대기 전원을 이용해서 운전자가 차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대용량 데이터를 차로 전송받을 수 있다.

실제로 OTA 기능을 갖춘 자동차를 타보면 어제 아침까지는 없었던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을 종종 경험할 수 있다. 자고 일어나니 차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주행 모드가 추가되고, 3단계로 열렸던 섀시프가 10단계로 미세 조절이 되어서 더 편리해진다. 계기판이나 중앙 디스플레이 디자인이 최신형 인터페이스(UI)로 바뀌면서 실내 분위기가 바뀐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디스플레이에 빨간 버튼이 갑자기 등장하기도 한다. 이렇게 OTA 기능을 갖춘 최신형



순수 전기차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방향으로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급변하는 자동차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 OTA는 사물인터넷이란 개념을 넘어 이동성의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는 ‘모빌리티’를 완성하는 기술에 가깝다. 이런 관점에서 OTA는 단지 누군가의 자동차를 개선하는 수준의 기술이 아니다. 넓게는 자동차와 주변 인프라의 상호 관계를 연결하면서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시티’ 같은 ‘초연결성’으로 진화 중이다. 많은 자동차 회사가 OTA 사업에 관심을 두고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다. OTA를 통해 ‘통합 연결 네트워크 서비스’가 완성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보안이다. 최신 자동차의 결함이 발견될 때 실행하는 ‘리콜’의 대부분은 제어 프로그램 펌웨어 업데이트를 거친다. 반면 OTA가 있다면 고객들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다. 사용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 불안감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불필요한 이동도 줄일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지속 가능성에도 도움이 된다. 실제로 P사의 경우 몇 년 전 OTA 서비스를 한국에 전략적으로 선보인 후 약 반년에 걸쳐 10여 번의 주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제공했다. 그 사이 수정, 혹은

은 개선된 항목은 100여 가지에 달한다.

반면 글로벌 차원에서는 OTA에 여전히 소극적인 제조사도 상당하다. 이런 자동차 제조사들도 OTA의 중요성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단지 넓고 다양한 지역에서 OTA를 구현하고 유지 보수하기가 어렵기에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대용량 데이터를 원활하게 주고받는 서버나 통신망 확보 같은 인프라 구축에는 단순 비용뿐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다. 투자 규모가 큰 기술일수록 가격 경쟁력 확보에도 영향을 미친다. 브레이크 성능, 배터리 에너지 관리 같은 세부 기능을 나중에 업그레이드로 제어할 수 있는 진보한 하드웨어는 곧 비용 상승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자동차는 신기술을 빠르게 도입하기 어렵다.

한편, OTA 기술을 비즈니스 플랫폼 구조로 전환해 소비자의 거부감을 사는 기업도 있다. 자동차를 산 후에 특정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기능을 추가(활성화)할 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 것이다.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과거의 개념에서, 공유한다는 모빌리티적 개념으로 변화하는 과도기에 발생한 사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미 모빌리티라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차세대 에너지 기술을 넘어 소프트웨어 분야로 빠르게 전환 중이다. 이제 OTA는 자동차 업계의 필수 전략이 되고 있다.

스마트 치안 시대, 자율주행 순찰로 골목길 구석까지 안전을 책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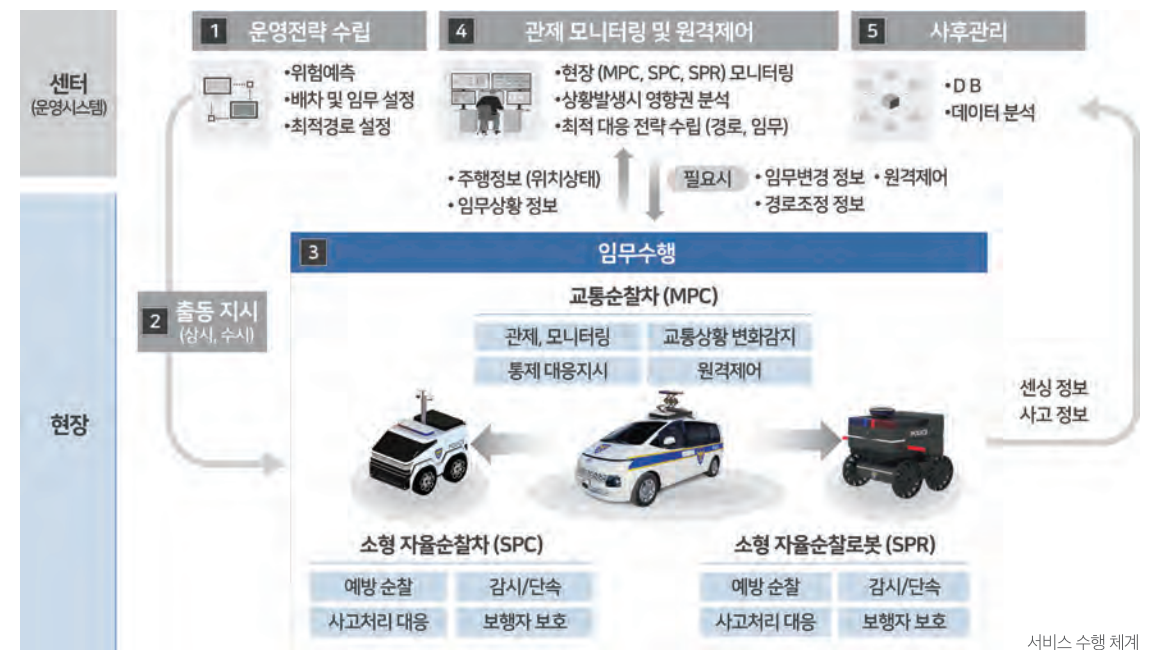
도로 위의 '예방 순찰'은 단속보다 앞서는 안전의 약속이다. 교통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순찰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신고와 과중한 현장 업무 속에서, 전통적인 순찰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첨단 기술 기반의 자율주행 순찰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 경찰청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사업 과제 <능동적 교통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자율주행 순찰서비스 개발>을 중심으로 자율주행 순찰서비스에 대해 알아본다.

글 김아람(정책연구처 연구원) 출처 <능동적 교통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자율주행 순찰서비스 개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과제번호 RS-2024-00403630, 경찰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왜 필요한가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운전자와 법규 위반 사고는 여전히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보차혼용도로에서는 과속, 부주의,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 위험이 높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순찰 활동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실제로 순찰은 사건·사고의 사전 예방 효과가 있다. 경찰의 신속한 대응성과 가시성은 범법 행위에 대한 심리적 억제 현상을 유발하며, 가시성 높은 순찰은 교통 통제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에 따라 경찰력이 강화될수록 법규 위반 발생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순찰을 통한 교통 업무 대응은 국민 신고보다 평균 40분 이상 빨라 현장 대응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 수가 매년 증가함에도 현장 순찰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특히 교통경찰은 다양한 교통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 업무 과중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교통경찰 1인당 담당 면적은 평균 9.4km²에 달하고, 교통신고 처리 건수도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다. 이처럼 인력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존 순찰 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자율주행 순찰의 역할: 예방에서 대응까지

이런 환경에서 자율주행 및 로보틱스 기술은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 해당 기술은 차도, 보도 등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물리적 제약 없이 운행이 가능하며, 경찰의 지속적인 존재감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상시 순찰 수행이 가능하다.

자율주행 순찰서비스는 차량과 보행자가 혼재된 도심 환경에서 보행자 보호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 차량 통제를 통해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영상 기록, 상황 전파, 조치 결과 보고 등 전 과정을 자동화해 신속하고 일관되게 사고를 처리할 수 있다.

자율주행 순찰서비스 연구개발과 실증 기반 구축

현재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자율주행기술과 공공안전 서비스를 융합해 교통사고 예방과 대응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능동적 교통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자율주행 순찰서비스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교통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경찰의 가시성과 예방순찰 기능을 강화해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율주행 순찰서비스는 기술 실험을 넘어 실제 도로 환경에서의 실질적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다. 순찰서비스를 수행할 다양한 유닛이 함께 개발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교통순찰차(Master Police Car), 소형 자율순찰차(Slave Police Car), 소형 자율순찰로봇(Slave Police Robot)* 등이 있다. 이 유닛들은 도로 위를 자율주행하며 예방순찰과 감시, 불법 행위 단속, 사고 발생 시 현장 대응 및 교통 통제 등 경찰의 역할을 부



순찰유닛 서비스 범위

* 소형 자율순찰로봇(SPR):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해 지정된 구역을 스스로 이동하며 감시·순찰 임무를 수행하는 소형 로봇



소형 자율순찰로봇(SPR) 대상 서비스 개념

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교통경찰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대응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실증과 제도 정비까지 포괄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순찰 유닛의 기능 개발 후,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취득하고, 관련 기술의 표준화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환경과 실제 도로를 대상으로 한 성능 검증을 거쳐, 자율주행 순찰서비스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입증할 예정이다. 이처럼 기술과 행정 이 함께 움직이는 통합적 노력은 교통안전이라는 공공가치를 보다 스마트하게 실현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자율주행 순찰서비스의 정책적 의미와 도입 과제

자율주행 순찰서비스는 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교통안전과 공공치안 영역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자 미래지향적 서비스 모델이다. 예산·물리적 제약을 극복하고, 사고 예방과 대응, 현장 통제 등 다기능적 치안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와 시민 체감 안전도 향상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I 기술이 일상화되는 전환기 속에서 자율주행 순찰서비스의 도입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공공안전과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제는 기술의 가능성을 제도화하고, 사회적 공감대 위에 실현해 나갈 때다.

5화



권상민 작가와 함께하는

안전툰

글·그림 권상민

안전거리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



낙동강 물길을 따라 전통의 향기를 걷다

전통의 숨결 속으로
가을을 거닐다

경북 안동

고요한 물길 따라 발걸음을 옮기면, 오래된 전통이 속삭이듯 다가온다. 안동의 가을은 고즈넉한 풍경 속에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하회마을의 백사장과 병산서원의 은은한 단풍, 월영교의 물안개까지. 이곳에서 우리는 계절과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시간을 만난다.

글 차은서 사진 남윤중(studio51)



하회마을, 물길과 전통이 만나는 산책

아직 여름의 더위가 머물러있는 9월. 길어진 여름에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는 뒤로한 채, 조금 늦은 휴가라는 생각으로 경북 안동으로 향한다. 안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회마을은 물이 마을을 감싸안듯 흐르는 낙동강 덕분에 ‘하회(河回)’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양반 문화를 간직한 마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며 현재까지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초가와 기와가 어우러진 마을 골목길을 걷다 보면, 고요한 시간의 결을 따라 이어지는 다양한 장소들이 기다리고 있다. 마을 중심에는 조선 후기의 내림제 가옥인 충효당과 양진당이 자리하고 있다. 두 집 모두 풍산 류씨 가문의 유서 깊은 종택으로, 하회마을의 전통과 정신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격식을 갖춘 구조와 너른 마당은 선비의 절제된 삶을 상상하게 한다.

마을 끝자락, 하회마을 선착장에 다다르면 낙동강의 물길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이곳에서 배를 타고 부용대 아래로 향하는 것도 좋다. 깎아지른 절벽 아

래로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강변을 따라 난 백사장, 그리고 부용대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마을 전경은 하회라는 이름이 왜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해준다.

부용대를 오르지 않고 마을 안쪽을 걷다 보면 삼신당과 만송정 숲도 만날 수 있다. 삼신당은 마을을 수호하는 신을 모시는 신당으로, 오랜 시간 마을의



하회마을

- 경북 안동시 풍천면 전서로 186-8(하회리 840번지 일대)
- 🅑 하회마을 주차장(도보 이동 가능, 셔틀버스 운행)



안녕을 기원해 온 공간이다. 그 곁의 만송정은 ‘만그루의 소나무’라는 이름처럼 울창한 소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어, 마치 고요한 시간의 숲을 지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하회마을에서 병산서원까지 이어지는 길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산책로다. 마을을 지나 낙동강을 따라 이어지는 오솔길은 계절이 바뀌는 풍경을 고스란히 품고 있다. 바람이 느긋하게 불어오고, 강변 풀잎들이 가볍게 흔들릴 때면 세상의 소음은 저만치 멀어지는 듯하다. 걷다 보면 어느새 병산서원의 정갈한 풍경이 눈앞에 다가온다. 이 길은 목적지보다 과정이 아름다운 산책길로, 여행자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풍경을 선사한다.

병산서원, 유교 정신을 품은 풍경

낙동강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나무들 사이로 기와지붕이 고개를 내민다. 깊어가는 가을의 공기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병산서원은 그 자체로 한 편의 풍경화처럼 고요하고 단정하다. 병풍처럼 둘러싼 산세와 유유히 흐르는 강, 조용한 마당이 어우러져 단정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병산서원은 임진왜란 당시 영의정을 지낸 대학자 류성룡(1542~1607)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서원이다. 원래는 풍산 현곡에 있던 풍악서당이 그 시초였으나,



1629년 지금의 자리로 옮겨지며 병산서원으로 개편됐다. 병풍처럼 둘러싼 산세와 흐르는 낙동강, 마당의 고요한 돌담과 소박한 기둥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공간 전체에 선비정신이 배어 있다.



병산서원

-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길 386
- 🅑 병산서원 주차장(입구에서 도보 이동)

특히 서원의 중심에 자리한 만대루는 병산서원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다. 넓은 마루에 앉아 눈앞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학문을 논하던 옛 선비들의 숨결이 들려오는 듯하다. 사방이 탁 트인 이 누각에서는 강바람이 그대로 마루를 스치고, 잔잔한 수면 위로 비치는 하늘이 시간의 흐름을 잊게 만든다. 서원 인근에는 짧은 생태탐방로가 조성돼 있어, 여행객들은 자연과 함께 역사적 여운을 이어갈 수 있다. 길을 따라 나무 데크 위를 걷다 보면 작은 정자나 쉼터가 있어 잠시 머무르기도 좋다. 바쁜 일상 속 이곳에 잠시 앉아 하루의 무게를 가볍게 흘려보내는 것도 좋겠다.

월영교, 사랑의 기억을 잇는 다리

안동 시내 상아동과 성곡동을 잇는 월영교는 국내 최장 목책 인도교다. 길게 뻗은 이 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낙동강은 아침과 저녁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특히 가을철에는 해가 기울며 퍼지는 노을 빛과 조명이 어우러져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월영교 중간에는 전통 정자인 월영정이 설치돼 있어 다리 위에서 잠시 멈추고 휴식할 수 있다. 다리 양옆으로는 수변공원과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역새와 바람, 반짝이는 수면이 어우러진 풍경을 천천히 즐기기에 좋다. 하지만 월영교가 진짜 전하고자 한 건, 그 풍경 너



머의 사연이다. 이 다리는 조형적 아름다움에만 그치지 않고, 이곳에 살았던 이응태 부부의 애뜻하고 숭고한 사랑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며 아내가 자신의 머리 카락으로 미투리를 지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린다. 그런 사랑의 흔적을 잊지 않기 위해, 월영교는 미투리 형상을 본뜬 디자인으로 완성됐다.

사랑을 닮은 다리 위를 걷다 보면, 계절과 시간, 그리고 기억까지도 잇는 월영교의 진짜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최근 안동을 포함한 경북 지역은 산불 피해를 입어 소중한 일상을 빼앗긴 바 있다. 이럴 때일수록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올가을 휴식과 함께 지역에 힘을 보태는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월영교

- 경북 안동시 상아동, 성곡동 일원
- 월영교 주차장(안동댐 인근, 도보 연결)



모범운전자연합회 안동지회 임재화 지회장 추천 식당



느티나무

넉넉하고 정갈한 한상정식이 대표메뉴로, 신선한 해물과 다양한 반찬이 푸짐한 것이 특징. 해물백숙 등 건강식 위주의 한상차림과, 사장님의 친절한 서비스가 기억에 남는 곳.

● 경북 안동시 양실로 63 느티나무해물백숙집 ☎ 054-857-3338



소문

깊고 진한 국물의 갈비탕이 대표메뉴로, 엄선한 갈비와 각종 재료를 푹 고아내어 갈끔하고 진한 맛이 일품이다. 변함없이 푸짐한 고품격과 균형 잡힌 간, 오랜 전통에서 오는 정성스러운 맛이 꾸준한 인기를 끄는 비결.

● 경북 안동시 광명로 39 ☎ 054-857-5282

바다 위 단풍 칠면초 군락지

가을이면 해안선을 따라 붉은 융단처럼 퍼지는 칠면초.
이 염생식물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갯벌에서만 자생해,
국내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만 만날 수 있다.
특히 9월부터 11월 사이, 서서히 붉어지는
칠면초 군락지는 계절이 지나가는 길목에서
놓치기 아까운 풍경을 선사한다.

글 편지실

사진 한국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서산시청, 신안군청, 고창갯벌식물원



① 인천 강화 / 석모도 매음리 갯벌

매음리 갯벌에 자생하는 칠면초는 9~10월 사
이 색이 짙어진다. 칠면초와 게 등의 갯벌 생물
이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곳은
지난해 해안산책로가 조성돼 방문객들이 더욱
편안하게 가을 정취를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 인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산1-2

② 충남 서산 / 가로림만 해안

서산 가로림만은 국내 유일의 해양생물보호구역으
로, 최근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칠면초 군락이 다시
자생하고 있다. 일부 구간에 탐방 데크가 조성돼
있으며, 해양정원 조성도 추진 중인 지역이다.

☞ 충남 서산시 대신읍 삼길포로 84-16

③ 전북 고창 / 고창갯벌 일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고창갯벌은 곰소만 일대에 형성
돼 있으며, 상부 지역에서 칠면초와 다양한 염생식물이 자
생한다. 고창갯벌센터와 탐방로가 조성돼 있어 생태해설 포
로그램과 연계한 체험이 가능하다.

☞ 전북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일대

④ 전남 무안 / 무안황토갯벌래

칠면초를 비롯해 다양한 저서생물과 멸
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무안황토
갯벌랜드에도 가을의 단풍 칠면초가 군
락을 이룬다. 체험 탐방로와 생태갯벌과
학관 등이 함께있어 여유로운 탐방에 적
합하다.

☞ 전남 무안군 하계면 만송로 34

⑤ 전남 신안 / 중도 태평염전 주변

국내 최대 천일염전이 있는 중도 태평염
전 주변에는 염생식물원과 칠면초 군락
이 조성돼 있다. 목재 데크와 생태 안내
판이 설치돼 있어 관람이 용이하고, '섬
함초축제'가 매년 가을 열려 볼거리를 더
한다.

☞ 전남 신안군 중도면 중도로 1058

⑥ 전남 순천 / 순천만 일대

순천만의 갯벌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생태의 보고다. 가을이 되면 갈대밭과 어우
러진 칠면초 군락이 붉게 물들어 장관을 이
룬다. 전동열차와 탐방로가 잘 갖춰져 있어
사진 촬영과 생태체험에 모두 적합하다.

☞ 전남 순천시 순천만길 513-25

동물과 공존하기 위한 교통 표지판

교통 표지판은 길을 안내하고 위험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는다. 조금만 주의 깊게 들여다 보면 그 나라의 자연환경과 문화, 지역 특색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세계 곳곳에서 발견한 이색 교통 표지판을 소개한다.

글 편집실 출처: 호주 교통안전청(TAC), 핀란드 라플란드 관광청, 일본 국토교통성 지역도로안내 자료, 이탈리아 만토바 시청 및 퀴르토 시청(Comune di Mantova, Comune di Quarto),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교통부



핀란드

순록 주의 표지

핀란드 북부 라플란드 지방에서는 순록 주의 표지판이 널리 설치돼 있다. 사미족이 순록을 방목하며 살아가는 이 지역에서는 순록이 도로를 횡단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겨울철에는 눈 속에 숨어 잘 보이지 않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순록 표지판은 순록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드러내는 상징이기도 하다. 실제로 핀란드 정부는 표지판 외에도 다양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에게 동물과의 공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탈리아

고양이 주의 표지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서는 고양이의 안전을 위한 이색적인 교통 표지판이 설치돼 눈길을 끈다. 브린디시, 나폴리 인근 퀴르토, 만토바 등지에서는 '고양이 횡단 주의(Attraversamento gatti)' 문구와 고양이 실루엣이 함께 담긴 표지판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표지판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역 주민 또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한 민간 표지판으로,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공동체의 자발적인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양이를 단순한 야생동물이 아닌 이웃으로 인식하는 이탈리아의 공존 문화가 엿보이는 사례다.



캐나다

야생동물 주의 표지

캐나다 로키산맥 지역을 달리다 보면 곰, 엘크, 무스 등 대형 야생동물 출몰을 알리는 다양한 표지판을 볼 수 있다. '야생동물 보호구간(Wildlife Crossing Zone)'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 구간은 특정 시간대에는 제한 속도가 낮아지며 도로 곳곳에 동물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도 마련돼 있다. 단순한 주의 표지판이 아닌 생태계 보존을 위한 설계가 도로 전반에 반영된 사례다.



원숭이 주의 표지

일본의 나가노현이나 군마현 등 산악 지대에서는 '원숭이 주의' 교통 표지판을 종종 볼 수 있다. 도시와 가까운 산에 서식하는 야생 원숭이들이 주택가 근처까지 내려오는 일이 잦아진 데 따른 것이다. 원숭이와 차량의 충돌 사고뿐 아니라, 사람과의 접촉 사고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관광지 주변에는 원숭이를 먹이로 유인하지 말라는 안내문과 함께 표지판이 설치돼 있어, 운전자와 관광객 모두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일본

캥거루 주의 표지

호주를 여행하다 보면 도로 곳곳에서 '캥거루 주의' 표지판을 쉽게 볼 수 있다. 야생 캥거루는 해질 무렵부터 도로로 뛰어드는 일이 잦는데, 차량과 충돌할 경우 운전자와 동물 모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설치된 경고 표지다. 실제로 캥거루 충돌 사고는 해마다 수천 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차량 손상과 보험 청구도 빈번하다고 알려져 있다. 단순한 동물 표지가 아닌, 생태계 보호와 도로 안전을 동시에 고려한 표지인 셈이다.



호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편리함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들

차가 알아서 해도, 우리는 안전을 배워야 한다. 자동차가 운전을 돕고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글: 차은서 출처: 한국도로교통공단 '자율주행차 안전수칙 리플렛',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교육자료 (2024)

← KOROAD

Q

≡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이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일부를 차량이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해 기계 장치를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장점

교통사고 감소	운전자 편의성 향상	운전 피로도 감소	도로 안전성 강화
충돌 경고, 자동 긴급 제동 기능 등을 통해 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률 감소	자동 주차 보조 기능은 주차를 포함한 여러 운전 상황에서 운전자의 편의를 높임	차로 유지 보조, 주행 제어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장거리 운전 시 운전자의 피로도를 덜어줌	보행자 또는 자전거 인식으로 긴급 상황 시 빠르게 대응하여 피해 최소화
연료 효율성 향상	주행 정보 제공	교통흐름 개선	기술 발전 및 자율주행 기반
경제적 운전 지원으로 연료 소비를 최적화해 효율성을 높임	실시간 교통 정보와 도로 상황 정보를 제공하여 안전한 환경 제공	차량 간 거리 유지로 교통 혼잡을 줄이고 원활한 교통 흐름에 도움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기초로 완전 자율주행 시대로의 전환을 도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단점

의존성 증가	해킹 위험	오작동 가능성
운전자의 과도한 의존으로 운전 기술과 주의력 저하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외부 보안 위협이 존재할 수 있음	센서나 소프트웨어가 잘못 작동해 오탐지나 미탐지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
조작의 어려움 및 오조작	날씨 및 환경 조건 제한	법적 및 윤리적 문제
운전자마다 조작의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며, 잘못된 조작으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	악천후나 극단적인 환경 조건에서 성능이 저하될 수 있음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거나, 윤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의 문제

← KOROAD

Q

≡

얼마나 알고
있나요?

나는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을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퀴즈로 알아봅시다.

① 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의 약자다.

② ADAS는 자동 주차 보조 기능이 있어 주차를 포함한 여러 운전 상황에서 운전자의 를 높인다.

③ ADAS의 장점 중 하나인 은 실시간 교통정보와 도로 상황 정보를 제공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④ ADAS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 (외부 보안 위협)이 존재할 수 있다.

⑤ ADAS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거나 윤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⑥ ADAS와 관련된 주요 기술에는 , 차로 유지 보조, 고속도로주행보조시스템 등이 있다.

43

KOROAD BIMONTHLY MAGAZINE

- ⑦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은 운전자의 을 보조해 차량이 주행 차로의 중앙을 벗어나지 않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 ⑧ ADAS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를 꼼꼼히 읽어야 한다.
- ⑨ ADAS는 자동화 단계에 속한다.
- ⑩ ADAS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다르며, 운전자는 항상 을 유지해야 한다.

정답

① ADAS ② 도로 상황 ③ 차량 관리 ④ 운전자의 이해 ⑤ 차로 유지 보조 ⑥ 운전자의 이해 ⑦ 차로 유지 보조 ⑧ 운전자의 이해 ⑨ 자동화 2단계 ⑩ 운전자의 주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관련 주요 기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SCC)	차로 유지 보조(LKA/LFA)	고속도로주행보조시스템(HDA)
앞차와의 거리 및 속도를 자동으로 감지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주행하는 기술 설정 시 도로 환경, 기상 상태, 교통 흐름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조절해야 하며, 시스템 작동 조건(최소 속도, 차로 구분 인식 가능 여부)을 만족해야 정상 작동	운전자의 조향을 보조하여 차량이 주행 차로의 중앙을 벗어나지 않도록 돕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특히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안전한 주행을 지원하며,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는 데 기여	운전자가 운전대 버튼 등을 통해 기능을 활성화하면, 고속도로 구간에서 차로 유지, 가속·감속, 안전거리 유지 기능을 동시에 지원하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제한 사항

-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은 자율주행 자동차와 다르다.
- ADAS 기능이 운전 작업의 요소를 수행할 수는 있지만, 운전자는 항상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
- 운전자는 ADAS의 작동에 대한 이해, 설정, 모니터링 및 대응을 포함하여 전체 주행 작업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 기능적 한계와 현행 법률에 따라 운전자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차량을 제어해야 한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안전 이용 준비 사항

- 취급 설명서 꼼꼼히 읽기**
운전자는 기능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운전하는 차량에 적용된 ADAS 기능을 반드시 확인하자.
- 도로 상황 점검하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자동화 2단계에 속한다.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아님을 인지하고 이용하자.
- 차량 관리의 중요성 인식하기**
ADAS의 센서, 카메라 관리로 악천후나 야간 주행 상황에 대비가 필요하다. 정상적인 작동을 확인하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철저히 관리하자.

< 이 부분을 촬영해 주세요 >

교통안전 실천 다짐

이름: _____ 획득 점수: _____ 점

느낀 점: _____

한 줄 다짐: _____



신호등과 함께하는 독자 이벤트

교통안전 실천 학습장을 스스로 풀어보고, 45쪽 교통안전 실천 다짐을 스캔 또는 사진으로 촬영한 뒤 이름,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hongbo@koroad.or.kr

횡단보도 앞, 마주 본 시선 속 마음 운전자 V S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긴장하게 된다.
서로의 움직임을 예측해야 하는 순간,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선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교통안전에 대해 돌아보자.

글 편집실

“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도로는 비로소
안전하고 따뜻한
공간이 됩니다 ”

운전자 A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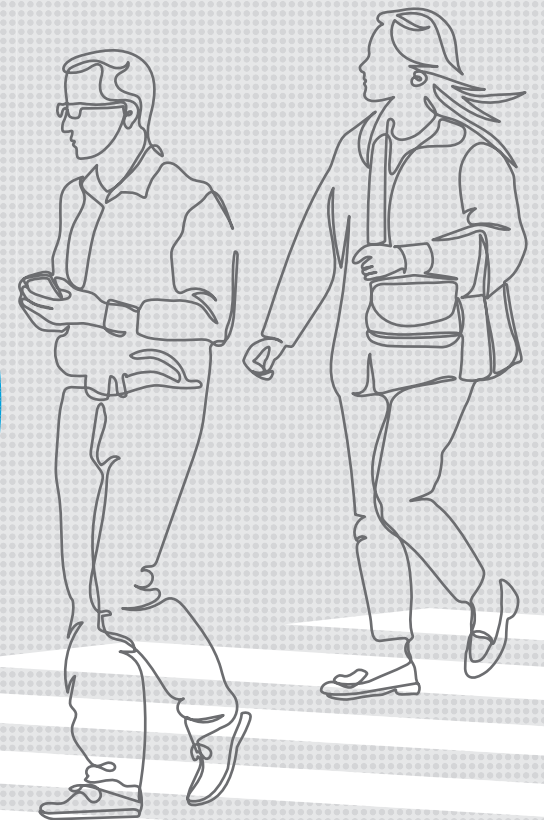
보행자가 없는 줄 알고
지나가는데 갑자기 뛰어드는
사람도 있어요.

예측할 수 없어서 더緊張해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주의하지만 안보이던
사람이 뛰어 들어오면 급정지를 하게 돼요.
사고가 날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자동차가 멈추는 줄
알았는데 지나가면
깜짝 놀라요.

운전자의 시선이 잘 보이지 않으니 더 알기가
어려워요. 차가 있으면 일단 멈춰서게 되죠.
운전자가 혹시나 잘 보지 못한다면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보행자 B 씨



농기계 안전수칙

참고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25.7.10.),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19.4.1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농업종사자의 안전대책'

1

작업 전 점검 및 보호구 착용



브레이크, 타이어,
유압장치, 전기장치,
연료 등 기본 작동
여부 점검



주변 작업 환경
(경사지 등 위험 요소)
사전 확인



안전모, 장갑, 작업복,
안전화 착용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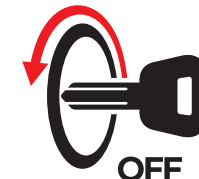
머플러, 목도리,
헐렁한 옷은 회전체에
말릴 위험이 있으므로
착용 금지

3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야간 및 비올 때
운행 자제, 불가피한
경우 반사경,
등화장치 활용



작업을 멈출 때는
시동 끄기



음주 후에는
농기계 조작
절대 금지



작업 후에는
갓길·비탈길을
피하고 평지에 주차

2

운행 및 정비 시 지켜야 할 기본 안전



정비나 점검 시에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회전체에는 손을
대지 말 것



농로·포장도로에서의
과속 운행이나 경사지
사용 삼가



작업 중 정원 초과
탑승 금지



트랙터, 콤바인 등에
소화기 의무 비치

4

정기적 안전교육과 기종별 매뉴얼 숙지



트랙터, 콤바인 등 기종별
맞춤 안전수칙 숙지

농기계 안전교육, 정비교육,
보험 안내 등 정기적 참여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당신의 의견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효율성을 위해서 어린이들이 다니지 않는 심야 시간대에는 속도제한을 완화하자는 의견과 어린이 보호라는 안전의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24시간 안전 확보가 필수라는 의견으로 엇갈리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며 나의 의견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정리 편집실

발표 자료

국민 불편 해소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단계적 시행

경찰청은 지난 2023년 8월 30일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속도 30km/h로 상시 단속이 이뤄졌다. 하지만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 7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9개소를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등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을 진행했고, 시범운영 결과 교통사고 발생률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시간 제한속도를 30km/h에서 40~50km/h로 운영하고 제한속도 40~50km/h로 운영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은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해 30km/h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한편,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간제 속도제한은 지자체별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가 필요한 장소에 대해 시간제 속도제한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신 호 등 특별 이벤트

당신의 의견을 들려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남겨 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글.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강화가 먼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제한을 시간제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를 시기상조라 본다. 우리나라의 낮은 교통법규 준수율과 안전의식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정해진 속도제한을 유지하고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반경 300미터 이내 도로에 지정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 구역이다. 최근에는 일부 변호사가 “심야에도 속도제한을 유지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정 단체는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학교가 주거지 인근에 밀집한 구조다. 심야에도 어린이가 보호구역을 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처럼 시간에 따라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면,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고 경각심을 무디게 만들 수 있다. 이는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

법과 제도는 한 번 완화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속도제한을 시간제로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보호구역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되새기고 그 기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OECD 산하 국제교통포럼(ITF)과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시속 30km 이하의 ‘고정 제한’과 안전시설 설계를 병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어린이의 특성과 행동 반응 속도를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다.

2025년 3월 기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1만 6,382곳이다. 하지만 상당수 구역의 안전시설은 여전히 미비하다. 예를 들어 대구시는 총 724개소의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지만, 이 중 120개소에는 보도가 없고, 약 200개소는 방호 울타리조차 설치되지 않았다. 고정형 CCTV 설치율도 61%에 불과하다. 이처럼 미비한 상황에서 속도제한 완화를 논의하기보다, 예산을 안전시설 확충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 차도와 보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물리적 안전장치를 늘려야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불법 주정차다. 현재도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빈번하게 발견되며, 이는 어린이의 시야를 가리고 운전자의 시야도 방해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엄격한 단속과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자동차의 속도와 효율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 안전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해야 한다.



임신부의 올바른 안전띠 착용방법

교통사고 충격을 완화하는 대표적인 보호장치 안전띠!

그러나 “임신 중에는 안전띠가 더 위험한 건 아닐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정보들을 가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오히려 임신 중일수록 착용 방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글 한효승(정책연구처 연구원)

교통사고가 임신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스웨덴 볼보자동차의 교통안전 전문가 로타 야콥손 박사는 “자동차 내에서 안전띠는 가장 핵심적인 생명 보호장치”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임신부의 경우, 충돌 시 복부를 강하게 압박받을 수 있을 만큼, 안전띠의 위치와 착용 방식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안전띠 착용 여부뿐만 아니라, 안전띠를 어디에 어떻게 위치시켰느냐에 따라 사고 후 태아의 생존율이 달라집니다.

국내외 다양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발생 시 임신부는 일반 여성보다 부상 정도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충격은 그대로 복부로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 자궁 내 태아에게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산부인과 관련 학회에 따르면¹⁾ 산과 외 원인에 의한 모성 사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교통사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87만 명의 임신부를 대상으로 대규모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통사고를 경험한 임신부의 조산, 사산 등의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²⁾

대부분의 임신부는 안전띠를 잘못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신부에게 교통사고는 임신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태아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교통법규 준수, 안전운전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불의에 의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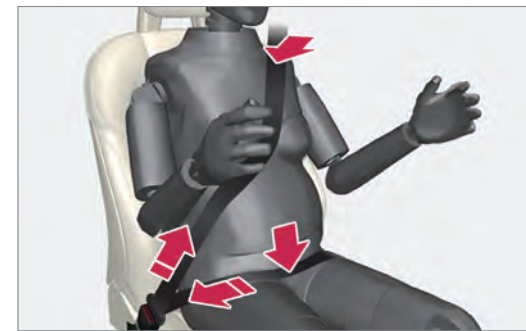
스웨덴의 보험사 폴크삼(Folksam)은 스웨덴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안전띠 착용률과 올바른 착용 방법을 조사했습니다. 조사에 응답한 스웨덴 임신부의 99%는 안전띠를 착용했지만, 이 중 39%가 안전띠를 잘못 착용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안전띠 착용은 교통사고로 인한 충돌 발생 시 안전띠의 원래 기능을 심각하게 저하함으로써 임신부와 태아의 부상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폴크삼은 잘못된 안전띠 착용 원인으로 정확한 정보제공의 부재를 꼽았습니다. 임신부 중 34%만이 안전띠

착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받았거나 스스로 찾아봤다고 응답했습니다. 선진국인 스웨덴에서도 임신부의 올바른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정보제공 창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임신부의 올바른 안전띠 착용법

임신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3점식 안전띠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안전띠가 복부를 지나가지 않도록 정확히 위치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신부의 올바른 안전띠 착용법(출처: 볼보자동차)

1) 골반을 지나는 안전띠는 복부가 아닌 배 아래쪽과 허벅지 위로 낮게 위치시키고 단단히 조여야 합니다. 해당 부위는 단단한 뼈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차량 충돌에 의한 충격을 더 잘 흡수할 수 있습니다.

2) 대각선 안전띠는 가슴 사이를 지나 어깨 중앙에 정확히 걸쳐야 하며, 절대 팔 아래로 빠서는 안 됩니다. 안전띠가 목을 조이는 것 같다고 느낄 경우에는 안전띠 자체를 조정해야 하며, 임의로 위치를 바꾸는 행위는 지양해야 합니다.

3) 안전띠는 몸에 밀착되도록 착용하고, 여유 공간이 없도록 주의해서 착용해야 합니다. 몸과 안전띠 사이에 여유 공간이 많을수록 충격 흡수 효과가 떨어지며, 복부에 직접적인 압박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또한, 안전띠에 추가적인 보조장치 장착은 지양해

야 합니다. 제품에 따라 충돌 시 안전띠가 미끄러지거나 뒤틀려 복부를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으며, 일부 제품의 경우 충격에 의한 파손으로 인해 부상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스웨덴에서 진행된 차량 충돌실험을 통해 위에 제시한 올바른 안전띠 착용법이 균형있게 충격을 분산시키고 복부 보호 효과에서 가장 뛰어난 안정성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올바른 안전띠 착용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임신부뿐만 아니라 자동차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에게 안전띠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생명의 탄생을 준비하는 임신부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스웨덴에서도 임신부들의 올바른 안전띠 착용을 위한 정보제공이 부족한 실태라고 꼬집었듯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임신부용 안전띠를 제공하는 등 임신부 편의를 위한 방법을 안내를 하는 곳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올바른 안전띠 착용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임신부는 임신기간 동안에만 교통약자로 배려를 받는다는 점에서 대상자가 매년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임신부들이 올바른 안전띠 착용법에 대해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홍보가 이뤄져야 합니다. 산전 검사 시 안전띠 착용법 등 간단한 교통안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안내 자료 배포,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내부에 포스터 게시 등 올바른 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임신부 본인은 물론, 가족과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나눌 때,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문화가 더욱 성숙해지리라 기대합니다.

1) Greco, Patricia S. MD; Day, Lori J. MD; Pearlman, Mark D. MD. (2019) Guidance for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Blunt Abdominal Trauma in Pregnancy. Obstetrics & Gynecology, 134(6); p1343-1357; DOI: 10.1097/AOG.00000000000035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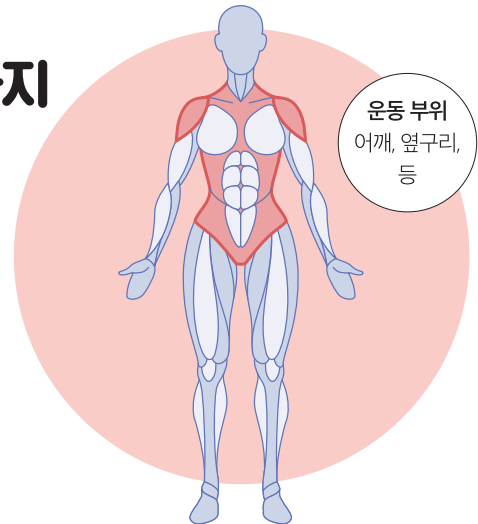
2) Vladutiu CJ, Marshall SW, Poole C, Casteel C, Menard MK, Weiss HB. Adverse pregnancy outcomes following motor vehicle crashes. Am J Prev Med. 2013 Nov;45(5):629-36. doi: 10.1016/j.amepre.2013.06.018.

본 글은 스웨덴 SAFER 및 NTF에서 2025년 4월에 개최한 ‘Bältesanvändning för gravida-hur rätt information kan rädda liv’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뭉친 어깨를 풀고 바른 자세를 만드는 상체 중심 필라테스 동작 세 가지

하루 종일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길다면, 굽은 어깨와
구부정한 자세가 습관처럼 굳어지기 쉽다.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하면서도 자세 교정에 효과적인 세 가지 상체 중심
필라테스 동작을 지금 바로 따라 해보자.

강사: 한진영 사진: 남윤중 장소제공: 대한민국 필라테스



첫 번째 동작 허리 말았다 늘리기

① 준비 자세

- 바닥에 앉아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이 오도록 네 발로 엮드린다.
- 척추를 머리부터 엉덩이까지 길어진 상태로 만든다.
- 복부에 힘을 주고 어깨는 귀에서 멀어지게 낮춘다.

② 동작 따라 하기

- 천천히 머리부터 척추 마디마디를 말아 날개뼈 사이를 천장으로 밀고 배꼽을 등으로 당겨 동그랗게(굴곡) 만든다.
- 가슴을 앞쪽 위로 끌어올리고 배꼽은 바닥을 향해 눌러 허리가 오목한(신전) 상태를 만든다.
- 굴곡과 신전 동작을 반복하며 척추의 유연성을 길러준다.

10회 3번 반복



강사의 도움말

- 복부 힘으로 움직임을 조절해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세요.
- 신전 동작 시 목을 뒤로 꺾기보다는 가슴을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이어가세요.
- 턱을 당기고 머리부터 척추를 하나하나 정돈하듯 움직이면 척추가 더 자극됩니다.

두 번째 동작 옆구리 늘리기

① 준비 자세

- 매트에 앉아 무릎을 대고 척추를 위로 길게 세운다.
- 두 팔을 위로 뻗어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잡는다.
- 엉덩이 좌우 균형을 맞춰 골반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한다.

② 동작 따라 하기

- 숨을 내쉬며 오른손이 왼팔을 잡아당겨 왼팔이 머리 위를 지나는 곡선으로 오른쪽으로 기울인다.
- 옆구리의 길이를 늘린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움직인다.
- 복부와 엉덩이에 힘을 주며 다시 정면으로 돌아온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한다.

양쪽 각 10회 3번 반복



강사의 도움말

- 기울일 때 엉덩이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골반은 정면을 유지한 채, 옆구리의 늘어남에 집중하면 효과가 더 큼니다.
- 더 큰 자극을 원할 시 엉덩이를 길게 뻗은 방향 반대 바닥으로 낮춰줍니다.

세 번째 동작 어깨 으쓱 하기

① 준비 자세

- 서거나 앉은 상태에서 척추를 곧게 세우고 양손은 편하게 엉덩이 옆에 둔다.
- 어깨는 뒤쪽 아래로 내려내고 턱은 살짝 당긴 상태를 유지한다.

② 동작 따라 하기

- 숨을 들이마시며 어깨를 귀 쪽으로 천천히 으쓱 올린다.
- 숨을 내쉬며 아래로 내린다. 올리고 내리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한다.

15회 3번 반복



강사의 도움말

- 어깨를 올릴 땐 승모근의 수축을 느끼고, 내릴 땐 어깨를 바닥으로 끌어 내리듯이 진행합니다.
- 움직임은 작아도 괜찮으니, 가슴이 말리지 않도록 최대한 천천히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작 후 목을 가볍게 돌려주면 뭉친 근육이 더 쉽게 풀립니다.



자동차 경고등의 의미
경고등 색깔별 의미와 종류를 알아봅시다!



도로 파임 사고 대처법
도로 파임으로 인해 사고가 난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농기계 안전 사고 주의!
농번기로 바쁜 요즘 농기계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다 같은 길이 아닙니다
고령보행자 교통사고 이렇게만 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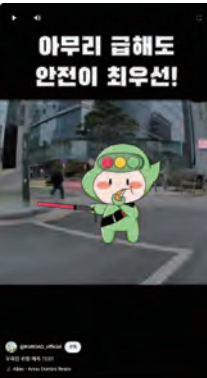
음주운전 술타기? 이제 못합니다!
강력해진 음주 측정 방해 행위 처벌에 대해 알아봅시다.



내가 도로 위 빌런?
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5대 반칙운전을 소개합니다.



초보운전자 주목!
사각지대 사고 예방법을 소개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잘 지키고 있나요?
우회전 위험 예측 시험에 통과할 수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1

“바짝 붙인 횡단보도, 이제 그만… ‘3m 거리’가 우회전 사고 막는다”

- 차량 회전 지점에서 3m 뒤에 횡단보도 설치하면 보행자 충돌위험 7% 줄어
- 한국도로교통공단 연구결과 기반,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업무편람에 반영



대구 동본리네거리 교차로 횡단보도 이격 설치 모습(사거리 중심에서 멀어지게 설치)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횡단보도 설치 기준이 마련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설치 기준을 연구한 결과, 교차로에서 차량이 회전을 시작하는 지점으로부터 약 3m 떨어진 위치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가능성이 평균 7%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단은 전국 10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가상 실험을 실시하고 횡단보도 설치 위치에 따른 차량 지체 시간과 보행자와의 상충 횟수를 분석했다. 횡단보도를 교차로 시작점에서 3m 뒤로 옮기면 차량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대구의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이격 설치한 후 현장 평가를 진행해 실제 보

행자 보호 효과를 확인했다.

연구 결과는 경찰청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새로운 권장 기준으로 반영됐다. 기본적으로 교차로에서 차량이 회전하는 시작점에서 3m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되, 교차로의 크기 등 개별 도로환경을 고려해 공학적 판단 후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기준 개정은 기존의 통행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횡단보도를 교차로 가까이 설치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보행자 안전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가 안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현장 담당자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

“교차로 개선하니 길이 뚫렸다” 생활권 교차로 개선사업, 통행속도 16.0% 향상·지체시간 29.5% 감소

- 한국도로교통공단, 상반기 전국 생활권 주요교차로 41개소 교통안전시설 개선
- 개선 결과, 통행속도 증가로 연간 27.3억 원의 환경비용 절감 기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지삼거리 교차로 개선 전후(교통섬 확장, 우회전 차로 재도색 등)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5년 상반기 생활권 주요교차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주거·상업지역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교차로 41곳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통사고와 정체가 많이 발생하는 주거·상업지역 교차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통약자·신호위반 사고 다발지 및 출퇴근 시간대(6~9시, 17~20시) 추정교통량¹⁾이 많은 읍면동을 고려해 개선 대상지를 선정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차량 소통 개선을 위한 신호 등화 순서 및 시간 조정 △보행 안전 증진을 위한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운전자 시인성 향상을 위한 노면표시 재도색 등이다.

개선 효과를 살펴보면, 교차로가 위치한 도로의 차량 통행속도는 시속 21.3km에서 24.7km로 16.0% 증가했고, 지체시간은 km당 98.4초에서 69.4초로 29.5%

감소했다. 차량 통행속도 증가에 따른 환경비용 절감 편익은 연간 27.3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안전 측면에서도 모의실험 결과 차량 간 상충건수가 11.7%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17만800건 → 15만761건).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39개소를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라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주요 교차로 교통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1) 추정교통량: CCTV 등으로 실제 조사된 교통량 데이터와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활용해 추정된 교통량(원자료 출처: 한국교통연구원)

개인정보 보호의 날 캠페인

‘전체 동의’ 누르기 전, 내 정보가 어디에 쓰이는지 꼭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전문 보기)

개인정보 수집

필수 정보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정보, 전화번호, E-mail,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7조의4 등

선택 정보
정보주체의 동의
온라인(웹페이지)과 오프라인(운전면허시험장)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을 적법하게 수집하고 있어요.

개인정보 이용

이용 내역

- 운전면허증 발급
- 교육 이수증 발급
- 회원 관리
- 수수료 정산
- 민원 처리

업무 목적 내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어요.

개인정보 제공

제3자 제공

경원청,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등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어요.

개인정보 파기

파기 절차

파기 검토, 파기 결정, 파기 실시, 파기결과 확인

안전한 파기 방법

종이: 소각 또는 파쇄
전자문서: 복구 불가능하도록 안전 삭제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복구 불가능 방법으로 파기하고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단의 노력

관리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 보호 지침 수립
- 개인정보 취급자 관리 감독

물리적 보호조치

- 보통구역 출입통제 적용
- 개인정보 문서 안전한 보관

기술적 보호조치

-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운영
- 접근통제 시스템 운영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정보주체(민원인)에게 개인정보 처리 절차와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수립 및 공개하는 문서

** 정보주체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3호]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ROTREX 2025

2025국제도로교통박람회

INTERNATIONAL ROAD & TRAFFIC EXPO

동시개최

2025 고양
아시아 대양주
도로대회

2025.10.28 (화) ~ 10.30 (목) KINTEX





경찰청, 5대 교통반칙 근절을 위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동단속 실시

- 경찰청·서울청·경기남부청 합동 「버스전용차로 위반 합동단속」 실시
- 5대 교통반칙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단속 예정

경찰청에서는 5대 교통반칙 행위¹⁾를 근절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안성나들목)부터 서울 시내(한남대교 남단)까지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경부고속도로에 설치·운영 중으로, 평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안성나들목(58.1km)까지, 토요일·공휴일은 양재나들목부터 신탄진나들목(134.1km)까지 운영하며, 평일 및 토요일·공휴일 모두 07:00부터 21:00까지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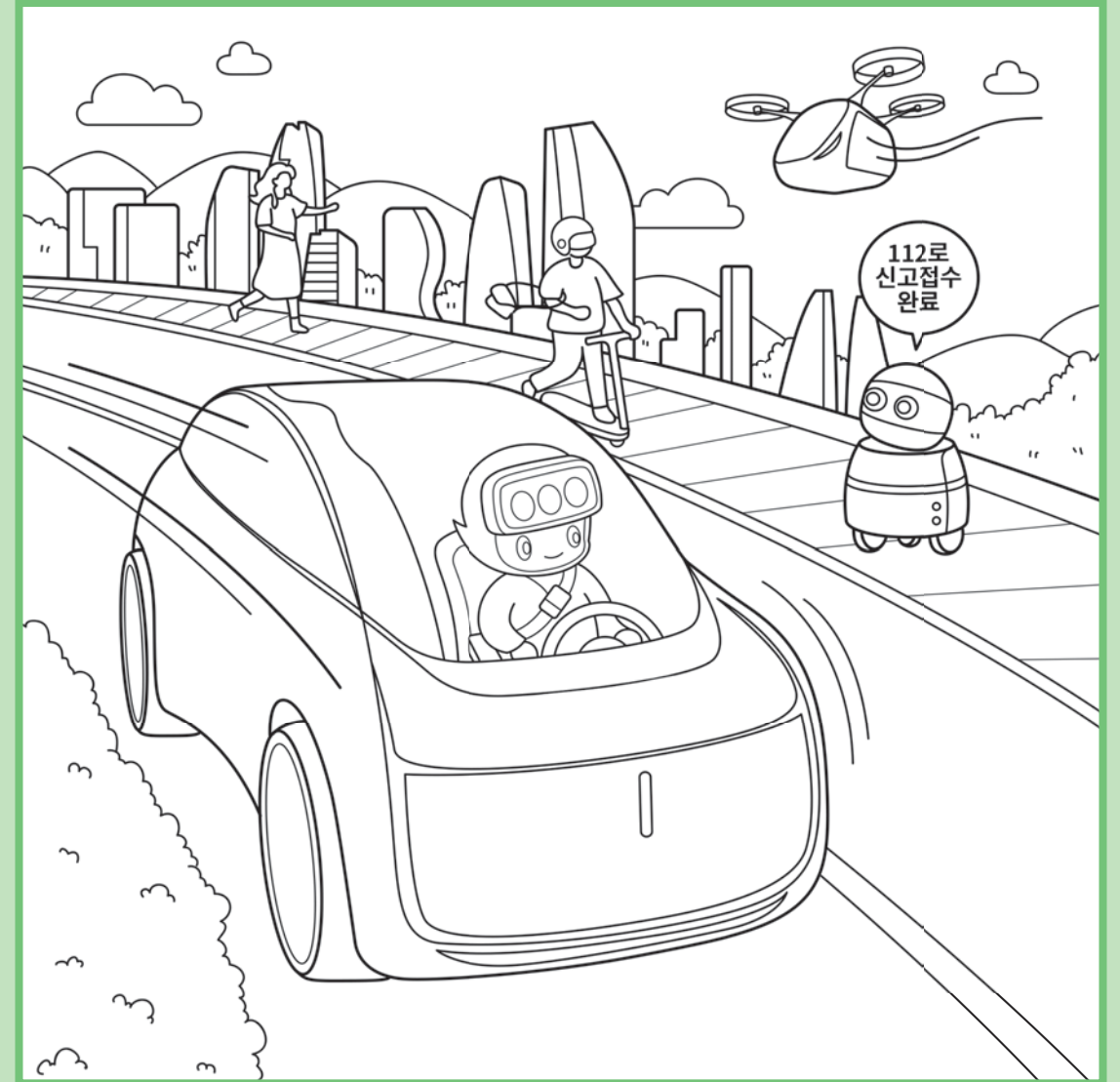
아울러, 서울 시내 설치된 버스전용차로(한남대교 남단~양재나들목)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해당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함께 운영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한정)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주행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6만 원, 승합자동차 7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참고로 운전자는 40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을 시 면허가 정지된다.

이날 합동단속에는 서울경찰청 및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관 27명과 함께 암행순찰차와 일반순찰차 16대 등 단속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경부고속도로부터 서울 시내까지(한남대교 남단~안성나들목)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승차정원 미준수 60건, 차종 위반 7건을 단속하였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치안감 한창훈)은 “5대 교통반칙 행위 중 하나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대해 법규 위반 분위기를 근절하고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전광판(VMS)·플래카드·광고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함께 연말까지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 5대 교통반칙 행위: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호동이’와 함께
도로교통 안전
생활을 약속해요!**

한국도로교통공단 마스코트 호동이는 교통안전 메신저입니다.
호동이를 예쁘게 색칠하면서 안전한 도로교통 생활을 약속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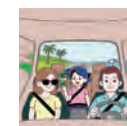
그림을 정성껏 색칠한 후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와 함께 2025년 10월 14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시면 총 5분을 선정해 호동이 인형을 드립니다.

hongbo@koroad.or.kr

※ 보내주시는 메일은 단체 계정으로 수신 확인이 '읽지 않음'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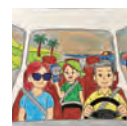
지난 호 당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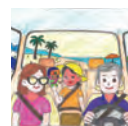
고*미(87*2)



이*지(83*5)



이*경(75*5)



방*녀(07*5)



김*자(57*4)

※ 상품 지급 시 색상은 임의 발송됩니다.

KOROAD 독자 의견

「신호등」은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함께 만듭니다. 매호 「신호등」을 읽고 느낀 점을 독자 엽서로 보내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 드립니다.



약속해요 안전운전

편리한 자동차를 이용하다보면 늘 교통사고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도 생기기 마련인데, 시선을 늘 전방주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교통사고 예방의 지름길을 엿보게 됐습니다.

황*규(26*2)



교통안전 실천 학습장

휴가철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차량의 안전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공감합니다. 특히 장거리 운전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는 점이 매우 유익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자동차 점검에 대한 지식을 퀴즈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장*익(39*4)



시선 차이

초보때 안경을 끼고도 시력이 좋지 못해 늦은 밤에는 상향등을 켜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훗날 상향등이 마주오는 차량 운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급적 상향등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켜다, 안 켜다기 보다는 때와 장소,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서*인(61*2)



안전수칙 365

길거리에서 전동보장구를 쉽게 마주치는데 실제로 어떤 규정과 원칙이 있는지 잘 몰라서 궁금했던 차에 그림으로 설명되어 쉽게 이해 할 수 있었습니다.

김*민(75*2)



KOROAD, CO-ROAD

이제부터는 고령자, 임신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임신부 전용 안전띠 제공과 전용 바우처 택시운행, 버스 미운행 지역 행복택시 시범도입, 농어촌버스 운행, 장애인 콜택시 등등 교통 약자 이동권을 보장하는 많은 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임(75*6)

「신호등」 모의고사

다음 문제의 정답을 맞춰 주세요.
신호등 9+10월호에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Q1. 이번 호 신호등의 특집 주제는 무엇일까요?

- 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② 훗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③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④ 글피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Q2. 이번 호 '큰 글씨 특집'이 진행된 코너는 무엇일까요?

- ① 죄와 벌 ② 팔도강산 한 바퀴
③ KOROAD 게시판 ④ 약속해요 안전운전

Q3. 지난 7월 개국한 '한국도로교통공단tbn〇〇교통방송'에서 〇〇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 ① 서울 ② 경남 ③ 충남 ④ 대전

참여 방법 2025년 10월 14일까지 '정답/이름/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 아래 메일로 보내 주세요.

hongbo@koroad.or.kr

과월호 당첨자 안내

7+8월호 신호등 모의고사

정답 Q1.② Q2.① Q3.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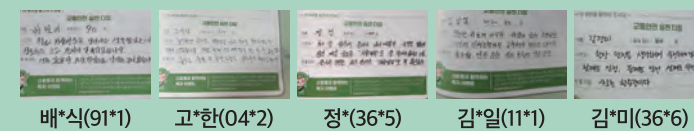
김*대(38*2), 황*윤(20*1), 권*미(96*7), 이*신(45*1), 한*희(93*4)

7+8월호 교통안전 퀴즈

정답 Q1. ④ Q2. ③, ④ Q3. ④

김*경(80*3), 김*준(64*9), 최*호(94*6), 김*기(81*3), 배*옥(24*7)

7+8월호 교통안전 실천 다짐



배*식(91*1)

고*한(04*2)

정*(36*5)

김*일(11*1)

김*미(36*6)

* 당첨자 발표 시 홍*동(11*1)으로 당첨자 정보가 공개됩니다.



「신호등」은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당첨자 및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 (모바일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상품 발송 시 휴대전화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선물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호등」에 게재된 내용의 오류를 발견해 아래 연락처로 제보해주시길 경우, 감사의 의미를 담아 소정의 선물을 증정합니다.
문의. 02-2090-1105 (신호등 편집실)

신호등과 함께 만드는 도로교통 안전 생활

「신호등」 정기구독 안내

- 「신호등」은 다양한 도로교통 소식과 교통안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무료로 발행하는 교통안전 종합정보지입니다.
- 「신호등」은 매 홀수달 초순에 발행됩니다.
- 구독 신청 및 해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신청·해지·주소 변경 방법

- ① 독자엽서
- ②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신호등」 정기구독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신호등」 안내

교통안전 종합정보지 「신호등」을 온라인에서 편리하게 만나 보세요.



QR코드를 촬영하시면
온라인에서도 「신호등」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특별 이벤트

1+1 구독 신청 이벤트

「신호등」을 지인에게 추천해 주세요!

신규 구독자가 구독 신청 시 추천인 정보를 입력하면, 추천인과 신규 구독자 모두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립니다!

이벤트 참가 방법

- ① QR코드 스캔
- ② 신규 구독신청자 정보 기입
- ③ 추천인 정보 기입(추천인은 기구독자에 한함)
- ④ 제출
- ⑤ 신호등 11+12월호에서 당첨자 확인

*당첨자는 '홍*등(11*)'로 표기됩니다.



구독신청 이벤트 참여하기



공동체의 신리를 저해하는

5대 반칙운전, 퇴장!



① 새치기 유턴!



주변을 충분히 살핀 뒤
대기한 순서대로 유턴

② 꼬리물기!



사각 빗금 구간 내 정차 금지
교차로가 비었을 때 진입

③ 끼어들기!



교통 흐름에 맞게
흰색 점선 구간에서 차로 변경

(고속도로)

④ 버스전용차로 위반!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차량은
6인 이상 탑승 시 통행 가능

⑤ 비긴급 구급차 법규 위반!



긴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
사이렌·경광등 작동 금지, 법규 준수